



心實愛世
攝信慈度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우의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1976. 10. 15. 등록번호 라-2143호·월간·비매물

東友會報

1988年(檀紀4321年) 11月30日 第137號〔1〕

발행인 鄭在哲
편집인 申益炫
인쇄인 盧哲容

東國大學校 總同窓會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2-18
성화빌딩 12층
전화: 733-3993(代)
733-3991, 3992, 3993

우편대체: 012328-31-525669
은행계좌번호 7500891

東國人的 밤

"12월19일에 만납시다"



公 告

제17회 東國人的 밤 개최

8만 東國인이 한자리에 모여 재회의 기쁨을 나누며 東國榮光을 다짐하는 [제17회 東國人的 밤]이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1988년도 「東國人的 밤」 큰 잔치에 同門여러분의 많은 참여있으시길 바랍니다.

아 래

1. 일시 : 1988년 12월 19일(月) 하오 6시 30분
2. 장소 : 엠버서더호텔 그랜드볼룸
3. 회비 : 2만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會사무국(733-3993)으로 문의 바랍니다.

1988년 11월 일

東國大學校 總同窓會

8萬同門 우의와 결속의 한마당

東國을 빛낸 동문 祝賀宴 겸해 개최

금년도 「제17회 東國人的 밤」이 오는 12월 19일 하오 6시 30분 엠버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해를 거듭할수록 경향각지에서 많은 同門들이 참석해 8만 동국인의 우의와 결속의 장으로 자리잡아온 이 행사에는 백발선배로부터 신입동문까지 참석해 母校愛와 우정을 함께 나누며 東國人的 긍지를 드높여온 명실상부한 8만동문의 큰잔치이다.

또한 「東國人的 밤」에서는 지난 한해동안 사회各界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침으로써 모교의 명예를 빛낸 각계 同門들을 축하하는 자리도 겸해 동창회와 모교의 발전을 기약하는 대동단결의 장으로써 변함없는 東國愛를 실감케 하는 행사이다.

많은 동문들의 참여로 내일의 東國榮光을 기약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올림픽 동문선수 환영회 제2회 東國文化賞 시상식도

「제2회 東國文化賞 시상식」 및 「서울올림픽출전동문선수환영회」가 지난 10월 28일 오후 7시 호텔 롯데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鄭在哲 본회회장, 黃軫經재단이사장, 李昌培대학원장, 원로체육인, 서울올림픽 출전 동문선수, 모교체육부지도자 및 재학생과 동문 등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환영회에서는 지난 86년 제정된 東國文化賞의 체육부문수상자로 선정된 金永南, 金光善, 金泰雨, 金相圭 동문에 대한 시상식을 갖고 서울올림픽출전 동문 선수들을 격려했다.

또한 모교 체육부수속 감독·코치들에게도 격려금을 전달하고 앞으로 모교 체육선수들의 지도육성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환영회에 참석한 많은 동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東國體育의 명예를 빛내기 위해 서로 노력하며 東國發展을 위해 단합해 나갈것을 다짐했다.



「동국체육인의 밤」을 겸해 열린 이날 환영회에서는 제2회 東國文化賞 체육부문 수상자로 金永南 (84체교·메달리스트) 金光善 (87체교·복싱금메달) 金泰雨 (86체교·메달리스트) 金相圭 (교원재·메달리스트) 동문을 시상하고, 金永南·金光善 동문에게는 격려금 2백만원, 金泰雨·金相圭 동문에게는 격려금 1백만원씩을 전달했다.

또한 서울올림픽출전 동문선수 전원과 모교 체육부 지도자들에게도 본회에서 모금한 격려금을 전달하고 이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鄭在哲 본회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동문선수들의 쾌거는 국민모두의 영광이자 전동국인의 자랑과 긍지」라며 앞으로도 동국체육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뜻을 밝히고 서울올림픽에서 선진한 선수단과 후배양성에 힘써온 모교당국에 경의를 표했다.

이어 李昌培 대학원장의 축사와 黃軫經 재단이사장의 치사가 있었으며 金永南 동문은 답사를 통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동창회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계속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환영회에 참석한 뉴욕동창회장 柳泳洙 (61연로) 동문은 金永南, 金光善 동문을 초

청하여 미국에서 신혼여행을 하도록 배려하겠다고 밝혀 많은 동문들로부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날 환영회에는 孫英燮, 張昌宣, 李敏輝 동문 등 많은 원로 체육인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는데 2부 연회행사에서 치어리더들의 여흥공연속에 음료를 들며 환영회에 참석한 동문간에 우의를 다졌으며 서울올림픽에 출전한 동문선수들

을 격려하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느라 분주한 모습들이었다.

한편 이번 체육격려금 조성에는 80여명의 동문과 지회에 협찬을 해 東國人의 단합을 꾀하기도 했다.

이번에 두번째 시상식을 가진 東國文化賞은 종교·정치·학술·체육분야 등에서 동국을 빛낸 동문을 기리기 위해서 지난 86년 본회에서 제정한 것이다.

東國體育의 힘찬 앞날 기약



선수격려금 협찬 동문

(단위=만원)

- ▲문태식 (49혜전)=100
- ▲김성섭 (53정치)=
- ▲박준철 (69경제)=
- ▲최철중 ()=
- ▲동국회 (회장:유근찬)=
- ▲유근찬 (49혜전)=50
- ▲우종식 (52경제)=
- ▲박진희 (52경제)=
- ▲정삼영 (60법학)=
- ▲김동경 (57법학)=
- ▲유우형 (57농학)=
- ▲박완일 (61법교)=
- ▲허문수 (57경제)=
- ▲윤일균 (69행원)=
- ▲김명선 (60경제)=
- ▲김낙천 (81행원)=
- ▲경인악 (62화학)=
- ▲정현화 (66삼학)=
- ▲홍필우 (70경연)=
- ▲이화일 (65삼학)=
- ▲안재관 (54국문)=
- ▲조규 (77행원)=30
- ▲김재국 (61경제)=
- ▲주택은행동우회 (회장:경호진)=20
- ▲우창욱 (67농학)=
- ▲지수구 (61경제)=
- ▲황진경 (모교이사장)=

- ▲박계산 (77행원)=
- ▲남상홍 (49혜전)=10
- ▲우순이 (60정치)=
- ▲관진식 (61경제)=
- ▲홍사현 (63사학)=
- ▲장형식 (60정치)=
- ▲유현록 (49혜전)=
- ▲홍정도 (62정치)=
- ▲평복장 (58정치)=
- ▲윤부성 (63생물)=
- ▲최준기 (57법학)=
- ▲동진희 (회장:이덕수)=
- ▲원홍선 (63경문)=
- ▲김용모 (59경제)=
- ▲이범준 (79행원)=
- ▲박익주 (61정치)=
- ▲박준용 (59경제)=
- ▲스기동우회 (모택)=
- ▲김길근 (66정치)=
- ▲이근우 (63경제)=
- ▲이창호 (70행정)=
- ▲송보일 (57경제)=
- ▲이인정 (70삼학)=
- ▲이윤심 (79행원)=
- ▲김성태 (79행원)=5
- ▲서옥번 (79경연)=
- ▲이희일 (63정치)=
- ▲김영환 (62경제)=
- ▲김중일 (58법학)=

- ▲최세화 (55국문)=
- ▲이경주 (58경제)=
- ▲김영일 (63정치)=
- ▲김무성 (83경원)=
- ▲봉수산물유동공사 (회장: 손영호)=
- ▲마경자 (53국문)=
- ▲임영신 (57경제)=
- ▲이영훈 (79경원)=
- ▲이상물 (57법학)=
- ▲김재기 (60경제)=
- ▲김동길 (61경제)=
- ▲동영희 (회장:최명재)=
- ▲정기성 (54정치)=
- ▲장창선 ()=
- ▲동송회 (회장:성진경)=
- ▲정경철 (80경원)=
- ▲양정호 (81행원)=
- ▲정태수 (70행원)=
- ▲유기천 (70행원)=
- ▲박수철 (57법학)=
- ▲안기성 (73경행)=
- ▲남시혁 (58정치)=
- ▲김홍우 (64연영)=
- ▲수학동우회 (송상현)=
- ▲백근기 (63법학)=
- ▲국민은행동우회 (회장:이중우)=2
- ▲최규철 (66정치)=
- ▲사회학과동문회 (회장:김정일)=

영남지역—충남지역 동창회 同門體育大會 열려 천목 다져

嶺南 5, 忠南 3개 支會 등 참가

영남대회 大邱支部 주최

대구지부(회장=夏永泰·유신무 역(株) 대표이사) 주최 「제5회 영남지역 동문체육대회」가 지난 10월 9일 경주캠퍼스에서 500여 동문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영남지역 동문들의 유대감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개최해 온 동문체육대회는 금년으로 5회째를 맞아 주최측인 대구지부동창회를 비롯해 경주직할 동창회, 포항동창회, 영주동창회, 경주캠퍼스재지동문회 등 5개 동창회가 단체별로 참가했다.

가족동반으로 열린 이대회는 1부에서 배구, 줄다리기, 공물리기 등의 경기를 벌였으며 2부에서는 각종단체별 참가자 랑대를 겨뤘다.

이번 대회의 종합우승은 대구지부가 차지했고, 준우승에는 경주교직원팀이, 3위에는 경주직할동창회가 각각 차지했다.

한편 이날 동문체육대회에서는 참석동문들의 축적 모금을 통해 45만원의 후원금을 조성해, 경주캠퍼스총학생회와 졸업준비위원회측에 전달하여 선후배간의 호뜻한 미담을 남기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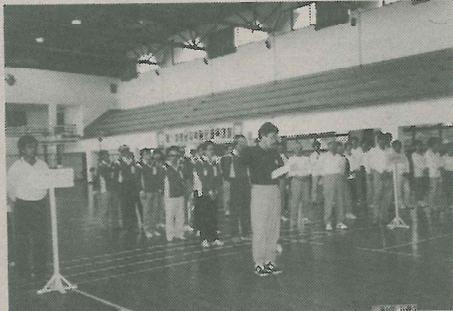
내년도 영남지역 동문체육대회는 포항동창회 주최로 열릴 예정이다.

충남대회 大田支部 주최

충남大田支部(회장=朴鍾九·국제특수남숙(주)대표이사)는 지난 10월23일 대전고 운동장에서 「충남지역 동문체육대회」를 갖고 충남지역 동문들간의 우의를 다졌다.

대전지부가 주최해 온 이대회는 금년으로 5회째를 맞이해 대전·서산·아산·오양 동창회를 각시군東友會에서 1백여 동문들이 가족동반으로 참석해 친선경기를 가졌다.

축구 배구 줄다리기 등의 경기와 동문가족이 즐긴 피구 게임을 통해 친목을 다진 이번 체육대회에는 대전시장으로



▲경주캠퍼스 체육관에서 열린 영남지역 동문체육회.

황동중인 김容聲(61법학) 동문과 대전中區 출신 국회의원 김洪萬(71정경) 동문들이 함께 참석해 충남지역 동문들간의 단합력을 과시했다.

경동회 송년모임

경성고교 출신 동문회인 경동회(회장=변영훈)는 오는 12월 3일 하오 6시 30분 안국동 소재 한국질스카우트회관 10층 대강당에서 송년회를 열 예정이다.

이다.

東國라이온스 월례회

東國라이온스클럽(회장=鄭在哲)은 지난 18일 월례회를 열고, 중부컨트리에서 골프모임을 가진후 池珠龜(63경제) 동문의 이천 고려도요를 방문했다.

同會는 또 장림 1주년 기념 총회 및 송년회를 12월 9일 하오 7시 하이아트호텔 류유폴홀에서 열기도 결정했다.

각支會別 송년모임 활발

經營科 선두로...유대강화의 계기 되길

각급단위 동창회는 연말에 즈음하여 각각 송년모임을 갖고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의를 다지는 동문송년회를 계획 중에 있다.

다음은 본지로 알려진 각종 동창회의 송년회 일정이다.

..... 무역화과: 무역학과동문회(회장=이계명·한 국유리공업(주)영업차장)은 11월 26일 하오 4시 모교 농구관

세미나실에서 88년도 정기총회를 갖는다.

同會는 지난 87년 12월 20일 창립총회를 통해 박득희가 소식 강화에 힘써오고 있다.

..... 경영학과: 경영학과 동창회(회장=白正基·삼 일실업대표)는 11월 29일 하오 7시 타워호텔 레스토랑에서 「제 4회 경영인의 밤」을 열 계획이다.

매년 송년모임을 제일 먼저 개최해 온 同會는 매학기마다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있다.

..... 농경제학과 동창회(회장=양재철)는 12월 7일 하오 6시 30분 안국동 소재 한국질스카우트회관 10층 대강당에서 송년회의밤을 연다.

..... 행정대학원: 행정대학원 동창회(회장=尹鎰均·한국개발(주)대표이사)는 88년도 동문회별 행사를 12월 8일

하오 6시 30분 리버사이드호텔 문리버홀(2층)에서 갖는다.

同會는 12월 11일 하오 3시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3층)에서 88년도 송년회를 열 예정이다.

..... 광주지부: 광주지부(회장=崔鎰鎰·광주교육대학)는 88년도 동국인의 밤을 12월 12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 대전지부: 장=朴鍾九·국제특수남숙(주) 대표이사)는 12월 15일에 88년도 東國인의밤을 개최한다.

..... 대구지부: 경북大邱지부(회장=夏永泰·유신무 역(주) 대표이사)는 제 9회 동국인의 밤을 12월 28일 하오 7시 대구 수성관광호텔에서 갖는다.

慶南支部 결성대회예정 ROTC 4期會 조직중

마산·창원시동창회(회장=정민용·(株) 영남공업사 代表理事)는 경남지역 각종동창회와의 유기적인 모임을 갖기 위해 경남지부 결성을 추진중이었다.

경남지역 지부결성을 위한 총회를 오는 12월 10일 하오 3시 창원산업공회의 소 회의실에서 가질 예정인 同會는 경남지역에서 활동중인 同門이나 각지역별로 조직되어 있는 기존 동창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울산 진주 김해 충무 삼천 포동 경남 각지역 동창회와 각 지역 동문들께서는 경남지부의 임시 연락사무소(마산 3-96 96 96 96)와 마산·창원시동창회(회장=정민용 83-3200, 4200)로 연락을 바란다.

R.O.T.C 4期결성준비

모교 R.O.T.C 4期결성동문 18명은 지난 24일 반포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R.O.T.C 4期會를 결성키로 뜻을 모았다.

66년 졸업생인 4기생들은 同會 준비위원장 成百幸(413-2421~3) 동문을 비롯해 각급과대학별 준비위원으로 위촉된 유영수(0331-44-0071) 박찬현(553-0951) 민병철(032-82-3421) 오대영(393-6289) 차주희(032-862-4401-5) 등 동문들에게 연락해 주길 바란다.

R.O.T.C 4期會는 환우 동기생들이 규합되는대로 12월 중으로 창립총회를 열어 정식 발족될 예정이다.

本會 회장단회의 열려

본회운영 및 모교문제 등 협의

본회 5·6차 회장단회의가 지난 10월 24일과 11월 5일에 각각 열려 본회운영에 관해 협의의를 했다.

본회 鄭江哲 회장과 文泰植 禹鍾植 柳潤聲 宣普圭 鄭相永 朴完一 朴俊우 尹鎰均 宋在雲 부회장이 참석한 제 6차 회장단회의에서 지난달에 열렸던 「서울올림픽수상자 환영의밤」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고 동창회 운영 전면에 베풀어 주

를 내렸다.

또, 회장단은 최근의 모교 학내문제에 관련해 토의를 하고 학내문제에 원만한 조속한 해결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기로 하고, 필요하하면 총동창회나 각급동우회에서 적극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회의후 柳潤聲 宣普圭 부회장과 申益斌 부주장은 모교 본관을 방문해 농성장을 둘러보고

제 5차 회장단회의는 鄭在哲 회장과 禹鍾植 金東正 柳潤聲 宣普圭 부회장, 南基一 감사등이 참석해 「서울올림픽 수상자 환영의 밤」 개최 및 격려금 조성 등에 대해 협의한바 있다.

城北支會 4주년 기념총회 개최해



호철 소나무홀에서 30여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주년 기념총회를 가졌다.

부부동반으로 열린 이날 창립행사에서 同會는 동문간의 유대를 더욱 강화해 회를 활성화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창립 4주년을 기념해 회원수첩 제 2집을 발간해 회원들에게 배부했다.

同會는 城北區에 거주하고 있는 동문들과 동지역에서 근무하는 동문들이 규합되어 창립 이후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서울지역 유일의 同門회 支會이다.

各支會 단체회비 보내와 한국투자신탁·흥국생명 東友會 등

최근 본會로는 미디트로이트 동문회를 비롯해 각지역 및 직장東友會를 통해 단체회비가 담지해왔다.

本會로 보내 온 단체회비로는 미디트로이트 지부(회장=明學植)서 미화 280\$, LA 오렌지카운티 동문회(회장=정찬문)에서 미화 100\$ 등이 해외지회로부터, 지역별로는 전북 전주지부(회장=金三龍·원관대총장) 10만원, 大白市 동문회(회장=김영환·황지교) 10만원, 직장별 東友會로부터는(주)녹십자동우회(회장=徐承三) 9만원, 한국투자신탁(주)東友會(회장=정용갑·정관리지점장) 20만원, 흥국생명(주)東友會(회장=柳國衡·총무이사) 30만원 등이 담겼다.

야구부 OB-YB 전

모교 야구부 출신 동문들과 재학생 야구부가 연례적으로 갖고 있는 OB-YB 친선 야구경

기가 지난 5일 하오 2시부터 모교 대운동장에서 열렸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친선경기에는 프로선수로 활약 중인 김성진 한해과 이진열 김병호 백인호 박철우(이상 해태) 이동서 이중화(이상 빙그레) 정구선 김민호 이문한(이상 롯데) 김봉근(태평양) 장호연(O.B) 동문들이 참석해 실업팀 소속 송진우 동문들과 한팀을 이뤄 이강철 박준태 등 대표급 재학생선수가 포함된 재학생팀과 친선전을 가졌다.

복사기 1대 기증

數學科 동문회

數學科 동문회(회장=송상현·주택은 행정주지점장)는 지난달 15일 하오 5시 30분 모교 다학관에서 동문 재학생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32회 수학인의밤」을 열고, 이차례 복사기 1대를 기증했다.

同門企業과 성장할 유능한 후배를 소개합니다

本會에서는 88년 10월부터 졸업생을 위한 모교 후배들을 위해 「就業案内室」을 설치 운영합니다. 사회로 진출하는 後輩들에게 보다 많은 취업 기회를 부여하고, 이들이 사회 각 분야로 나가 성실하고 의욕적인 활동을 펼칠수 있도록 기업을 운영하시는 동문 여러분과 각계 중진 同門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와 협조를 기다립니다.

□연락처 : 733-3991-3

東國大學校總同窓會 就業案内室

「東國人的 밤」에 즈음하여

東友斷想

88년도 「東國人的 밤」이 12월19일로 다가왔다. 매년 연말이면 송년회를 겸해 전체 同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옛학우들을 만나고 母校愛를 함께 나누는 이行事가 할 해로 열일곱번째를 맞이했다.

이 「동국인의 밤」의 열풍을 되짚어보면 지난 71년부터 임시총회를 겸한 송년회 및 東國을 빛내준 동문敎育會로 치러오다가 77년부터 현재의 「東國人的 밤」으로 명칭을 바꾸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특히 이 행사가 동문 사회에서 그 참여폭이 큰 이유중의 하나는 국내외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야를 바탕으로 東國의 내일을 생각하며, 이와함께 동창회와 모교발전에 기여해온 동문들을 위한 축하의 자리가 마련되는 데 있다고 하겠다. 즉, 선배 동문이 1년에 한 번씩 만나 면면히 이어져오는 모교의 전통을 되새기고 계승하여 더욱 발전하는 모교가 되어주기 바라는 「동국사랑의 정신」이 이 행사를 추진하게끔 머무르고 뜻있게 하는 원동력이 아닌가 싶다.

돌이켜보면 모교 82주년의 역사와 더불어 80년에 이르는 역사를 지켜온 총동창회는 모교와 유리대 있는 별개의 단체가 아닌 밀고여도 밀리고 한몸이 되어 성장해온 것임을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

明進學校로부터 오늘의 東國大學에 이르기까지 동창의 역시 그 역사와 함께하며 1908년 제1회 졸업생들이 발족한 廣學會로부터 오늘의 총동창회로 발전해온 것이며

가운데서 同窓會는 초대 회장 高海산사로부터 白性那 趙明基 慎京勳 崔載九회장으로 내를 이어오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급변된 제1회 東國人的 밤이 갖는 의미는 그어느때보다 자못 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우선 많은 동문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모교현안문제가 진흥에 진흥을 거듭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체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는 점의 어느해 못지않게 의의를 지닌다 하겠다. 또 「동국발전」에 관한 전체 동문들의 기여도나 참여의식 고양에 대한 요구기초는 시점에서 급진도 「동국인의 밤」이 열림으로써 진정된 모교발전에만한 선배동문들의 몫은 무엇인가를 재삼정립해야 하기때문에 매우 뜻깊은 것이기도 하다.

이점과 함께 또한 이의의는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전일보해야 하는 위치에 우리 모두가 다다랐다는 점 역시 이번 「동국인의 밤」이 갖는 소중한 의의가 아닌가 싶다.

다시말해 그간 모교발전에 기여해왔던 전체 동문들의 위상이 보다 확고하게 실현된 위치에 서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소망같이 8만 동문 모두가 주어진 책무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독립적이고 자생적인 본회의정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능동적인 전체 동문들의 참여가 절실한 시점에서 이제는 전 東國人이 접연해 마지 않던 독립된 同窓會館 건립이라는 과제도 이번 「동국인의 밤」을 통해 하나의 뜻으로 도출돼 추진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오는 12월19일에는 많은 同門들의 참여속에 진 동문들의 중지가 모여져 참된 東國發展을 위한 구도가 마련되어 주기를 바란다.

거듭 발전하는 모교와 동창회를 위해 중지를 모아주길

뉴욕支部 五輪환영회 개최

金永南·金光善동문夫婦 초청해

뉴욕지부 동창회(회장=柳洙洙)는 오는 12월4일 열릴 예정인 88년도 「뉴욕동국인의 밤」에 金永南(84세교)金光善(87세교)동문을 초청, 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환영회를 갖기로 했다.

또한 뉴욕지부는 이번 메달리스트 환영회에 金永南 동문의 부인 이시은씨도 함께 초청해 두동문 부부의 신혼여행도 아울러 추진해 주기로 했다.

두 동문의 미국초청은 지난 10월28일에 열렸던 서울올림픽 수상자 환영의 밤에서 뉴욕지부 柳洙洙회장이 이들 두동문 부부의 초청을 밝히면서 이루어졌는데, 뉴욕지부 고문인 張振建(50사학·우대목代表) 등

분들이 이들의 왕복항공권 및 주지역내 여행에 필요한 항공권 인체를 전담 제공키로 했다. 개교 이래 올림픽에서 첫메달을 안아 이번 뉴욕지부의 초청을 받은 金永南 金光善 동문은 지난 서울올림픽에서 메달 7499금 그레고리안철과 권투플라이급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해 국위를 선양하고 모교의 명예를 떨친바 있다.

한편 이번 뉴욕환영회에서는 그간 올림픽을 대비해 결혼식을 미루어온 金永南동문 부부의 결혼식이 함께 열리게 돼 동문사회의 화제가 되고있기도 하다. 金永南 金光善 동문 부부는 오는 12월23일 출국해 약보름간의 일정으로 뉴욕을 비롯로 스엔젤레스 시카고 등지를 여행할 예정이다.

시소시인들이 왕복했으니 지난 85년부터 작품집 「동국시조」를 발간해 이번이 제4집을 펴냈다.

제4집에는 趙宗玄 李祐鍾 李政龍 李相實 金東俊 黃淳九 楊源植 高英 朴相文 권정희 등 문인들의 작품이 수록돼 있고 제9회 萬海백일장 수상작품이 게재돼 있다.

東林會 발족돼

農學科 64년 동거회

農科大學 입학과 64년 동거회인 東林會(회장=朴泰元·68입학·유일대표)가 35명의 동문들을 유야해 정식발족했다.

지난 10월 23일 모교 불상 앞에서 졸업후 20년만에 재모임에 갖은 동회는 朴鍾建(68·입학 프랑스로 대표) 동문의 주선으로 64년입학 및 68년 졸업생들을 주축으로 東林會를 창립했다.

政外科 회장단회의

정치외교학과 총동창회(회장=朴翹柱·11·12대의원)는 지난 16일 사학계 사무실에서 회장단회의를 열고 同會 송년회를 오는 12월12일 하오 6시 송년클럽에서 갖기로 결정했다.

同會는 또 지난 1일자 「東政會報」11월호를 발간해 51년 도부터 87년도 졸업생까지의 동문수소를 개세하고 전외동문수습제작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東國人名錄」발간작업 지연

내년 定期總會시 발간키로

현황접수는 계속해

본회에서 준비중에 있는 「東國人名錄」제6집 발간작업이 당초 일정보다 늦어져 내년도 총회시 발간 배포키로 됐다.

지난 12월 「동국인의 밤」까지 제작키로 했던 제작일정이 다소 늦어지게 된 것은 「인명록」제작에 산상의 문제와 함께 현재 재각급支部·支會별로 제과업 중인 同門현황 파악이 미흡한데 따른 것으로 본회에서는 보다 완벽한 현황통제를 위해 제작일정을 연기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본회로 동문현황을 알려오지 않는 각급지부·지회에서는 빠른시일내에 최근현황을 통보하여 주기를 바라며, 「東友會報」를 받아보는 동문들에게서는 여력이 닿지 않는 주위 동문들의 현주소등을 보내주시기 바란다.

다음은 11월중에 접수된 각급단위 東友會報를 명단이다. ▲부여화과동문회(회장=이계명) ▲정의과동창회(회장=박익주) ▲과주지부(회장=崔聖鎬)

▲경제학과71년동거회 ▲통계학과 동창회(회장=유희철) ▲東林會(회장=朴泰元) ▲성북중문회(회장=金光善) ▲연경영화과동문회(회장=최홍규)

동국시조시인회

「東國時調」발간해

東國時調詩人會(회장=黃淳九·62·국본)는 최근 「東國時調」제4집을 발간했다. 同會는 79년 창립되어 동문

本會來訪

▲박진희(52경계, 본회부회장, 경북광주(주)회장) ▲장진전(50사학, NY·LA 우대목대표) ▲백경기(64경계, 경영학과동창회장, 삼일신문사) ▲박수진(77행정, 새민중합동봉사자) ▲서병준(61법학·화인센사사무) ▲서병준(61법학, 불이통상(주) 대표이사) ▲김만(67법학·청학농장대표) ▲김정원(85사공·현

대자동차) ▲신국주(48전문·모교교수) ▲이덕수(61법학·동진회 회장) ▲마경자(53국문·과주여중교교장) ▲김정환(67경영·타원호텔이사) ▲박종진(68입학·프랑스로 대표) ▲신민선(63경계·전국회의원) ▲김완식(71농학·고성군세마을운동중앙본부원 의회장) ▲김낙진(81병원·고려가 대표) ▲라국환(83경원·국제출산대교) ▲최희성(56경지·종로전기대표) ▲오국근(58영문·모교교수) ▲윤현영(66 농학·계원개발(주)사장) ▲박동기(60경계·모교체육실장)

체신부 通信工事면허업체

卍宇電子通信公社

TEL: 273-4048 (代)

- 각종 通信設備 유지 보수
● 각종 通信機器 제작 및 설치
● 전자식 자동교환기 및 키-폰
● FAX·TELEX, 인터폰, MDF 설치
● 컴퓨터 및 SOFTWARE 운영

대표 趙椿煥 (74경영)

중구 을지로4가 315-1 무광BD 510호

桃園꽃심

화환·꽃바구니
생화·신부화
화분·동·서양란

TEL: 266-4571
야간: 602-4806

대표 辛承水 (72경영)

서울·중구 충무로 4가125-1
진랑빌딩 3층 42호

회비 ... 1년에 1만원

협조를 바랍니다

◇회비내역

- 一般會費... 1만원
· 理事會費... 5만원
· 常務理事... 20만원
· 단체회비... 회원수대로
· 해외동문회비... \$ 20
· 監事... 20만원
· 副會長... 50만원
· 會長... 100만원

◇납부안내

- ①은행지킴이용 납부
②전화주시면 방문납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會사무국(733-3991~3)으로 문의 바랍니다

東國大學校 總同窓會 事務局

玉冠문화후장 서훈

俞賢穆 등문



俞賢穆(49) 문학·도교교수·본회 이사)등문은 지난달 20일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있었던

「문학의 날」 행사에서 玉冠 문화후장을 받았다. 우리 문화예술발전에 공헌한 원로 문화예술인들에 수여되는 이 훈장을 받은 俞등문은 국내영화예술진흥회 상으로 「오발탄」 「승은 이순신」 「이연간」 「순교자」 등의 우수한 작품을 감독한바 있다.

한편 俞등문은 현재 모교 연영과교수, 예술원회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며 본회제작 「제1회 東國文化賞」을 수상했고 그밖에 도서출판사, 대중상, 대한민국 예술원상, 인도 국제영화제 특별명예상등을 수상하였다.

共和黨 산악회장에

崔載九 등문

崔載九(52국문·본회교원·신민주共和黨부총재)등문은 지난 12일 세검정 僧伽寺에서 열린 공회당 산악회 결성식에서 초대회장으로 피선됐다.

본회회장을 지낸 崔교문은 4선의원(8, 9, 10, 12대)을 지냈으며 국회경과위원장, 국민당부총재 등을 역임하고 현재 공화당부총재, 地自制특위위원장에 재임중이다.

「東亞文化」 학술회의

徐徽玟 前총장

徐徽玟 前도교총장 (학술원회장)은 지난달 20일 학술원회의실에서 「東아시아에서의 비교문화」란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열었다.

지난 8월 학술원회장에 취임한 徐前총장은 법철학·사회철학 한국학회를 비롯 存虛 불교문화 재단이사장등으로 활약중이다.

부산세관장에 취임

朴珍彥 등문



朴珍彥(58) 경제·본회이사)등문은 지난 8월 부산세관장에 취임했다.

朴 등문은 관세 공무원교육원장, 대구세관장, 김포세관장, 관세청지도국장, 서울세관장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본회이사로도 활약중이다.

警察界 2등문 서훈

俞相植·宋瑞圭 등문

지난달 21일 치안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제43회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치안질서유지에 헌신한 공로로 俞相植(72대인·경무관) 宋瑞圭(55법학·총경)등문이 각각 홍조근정훈장과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俞相植등문—현재 치안본부 정보1부장에 재직중이며 본부 정보1과장, 경남합천시장, 서울시장 제4부장등을 역임했다.

▲宋瑞圭등문—현재 경기도남양주경찰서장으로 재직중이며전북도경 수사과장 군산경찰서장등을 역임했다.

여래불 점안 범피열어

金貞愛 등문



金貞愛(59) 불교·불교사상연구회 이사장·본회이사) 등문은 지난달 30일 수번 발달산대승원에서 조성불사를 마치고 남북통일기원 팔달산 미륵존여래불 점안대회를 열었다.

金 등문은 불교생활사부사장, 모교인쇄소사장, 불교사상연구회 감사등을 역임했으며 東友會 명예회장, 본회이사로도 활약중이다.

관광공사 개발부장에

朴鍾在 等문

朴鍾在(59경제·본회이사) 등문은 최근한국관광공사조산실장에서 개발부장으로 영전했다.

朴 등문은 同社에서 기획조정실장, 관광교육원장, 총무부장등을 역임했으며 본회이사로도 활약중.

中國 방문하고 귀국

朴翹柱 等문

朴翹柱(61정치·11·12대의원·본회이사)등문은 지난 10월18일부터 11월6일까지 中國 길림성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 뒤 산천지와 현지 여러 지방을 돌아보고 귀국했다.

春江文藝기금 수상

金文洙 等문



金文洙(62) 국문·소설가)등문이春江實雨社 박사가 제정한 제1회 春江文藝작가 기금 수상자로 선정되어 지난달 22일 포항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금년 제2회 등국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한 金등문은 75년 현대문학상, 79년 한국창작 문학상, 86년 한국문학작가, 87년 趙演鉉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작품활동을 해오고있다.

「자목련 질 배」출간

朴健雄 等문



朴健雄(63) 국문)등문이 이십여년의 시작활동 속에서 처녀시집 「자목련 질 배」를 냈다.

朴 등문은 이 시집에서 교육자로서의 조신스럽고 구구대언 인생관으로 쓴 「자목련 질 배」를

를 비롯 60여편의 시를 실었다. 현재 삼일학교에 재직중이며 한국문인협회 경기 시분과위원장, 기독교학교 수원전도부장등을 역임했다.

교육철학 연구회장에

朴先榮 等문



朴先榮(65) 불교·도교교수) 등문은 지난 9월 연세대에서 열린 한국 교육학회 정기총회에서 교육철학연구회장에 피선됐다.

朴 등문은 국내교육철학계의 중심으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고 있으며 前교과교무처장, 학생처장등을 역임했으며 84년에

아남정밀(주) 상무이사, 同전부이사, 同부사장및 국제통신공업(주) 대표이사등을 역임한 바 있다.

럭키회제 대리점 이전

康鎮元 等문



康鎮元(72) 경정)등문은 최근 남대문로에 럭키회제 해상보험 성광 대리점을 이전 개

업했다. 자동차보험, 화재보험을 비롯 선박, 적하, 상해, 해외여행자, 팔프상해보험등 손해보험을 취급하는 康등문의 연락처는 남대문로1가 18번지(대일빌딩 12층) (736)6032

장으로 활약중이며 북한산 입장료징수를 반대하는 북한산내 사찰의입장을 대표하기도했다.

(주)千陽交易 개업

金榮一 等문



金榮一(63) 정치·본회이사)등문은 11월초 (주)千陽交易 商社를 개업하고 대표 이사에

취임했다. 종합무역 업무를 취급하는 同社의 주소는 성동구 마장동 521-10 대해빌딩405호, 전화 269-4505, 4992, 텔팩스 (02) 269-4933이다.

司法考試 최종합격

李相結 等문

李相結(88법학)등문은 지난달 20일 충무사에서 발표한 제30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등문단신>

▲李斗浩·趙維熙(61경제)등문은 최근 아르헨티나로 이민했다. 李등문은 경제61년의 8대회장, (주)한일퍼라이트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趙등문은 영재학원 부원장등을 역임했다.

▲金滿(67법학)등문은 경기도 포천에 靑龍농장을 개장하고 대표로 활약중이다. 연락처는 포천(32)9956.

▲李壽龍(85경정)등문은 최근 한미은행 인사에서 역삼동지점 입사역 과정으로 승진했다.

結婚

▲張聖賢(57정치) 등문—10월 15일 오후 1시 50분 진주에식장서 장녀결혼

▲趙文榮(60법학·본회이사) 등문—10월 28일 오후 1시 해군회관에서 장남결혼

▲李鳳相(63정치) 등문—지난 20일 오후 3시 재향군인회관에서 장남결혼

▲장재태(현재원동장의 사무차장)등문—지난 20일 오전 10시 「한국의집」서 하객

▲白光烈(84법학·전기신보기자)등문—10월 27일 오후 2시 광운회관서 하객

▲金光善(87체교·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등문—지난 26일 오후 1시 행복에식장서 하객

訃音

吳學榮등문 別世



吳學榮(63) 국문·구작가·예총사무총장)등문은 지난 7월 일 교통사고로 별세했다.

吳등문은 73년 동아일보에 회곡「꽃더불어」이 당선 된뒤에 메워한 이래 83년 대한민국 문학상, 85년 東國文學賞을 수상했으며 회곡집 「꽃과 십자가」 소설집 「침묵의 소리」이론서 「회곡론」 등 활발한 문화활동을 벌여왔다.

장례식은 지난 9일 문인장으로 치러졌으며 장지는 용인 카톨릭공원묘지.

▲崔光春(62인화·대광주택사장·본회 이사) 등문—10월 26일 모친상.

광고접수 733-3993 代

최고년 13.05%의 수익률 보장!

CP는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금액 · 1,000만원 이상 만기 · 90일 이상

확실한 투자, 행복한 미래

대한투자금융

DAHAN INVESTMENT & FINANCE CORP

서울명동대거리 투자상담 777-4491
대 대표 771-06

現代公認仲介士 合同事務所

公認仲介士 金炯敏 (75경정)

가장 안전하고 높은수익의 土地투자

서울 강남구 신사동 579 광정빌딩 304호
代表 549-8266, 549-8264~7, 546-2882

신입생 入學원서접수 끝마쳐

1만5천여명 지원...4대1 경쟁

모교 89학년도 신입생모집을 위한 원서접수가 지난 24일 오후 5시에 최종 마감되었다.

총 3천 8백 10명(경주캠퍼스 포함)을 선발하는 이번 입시에서는 1만 5천 2백 70명이 지원해 평균 4.01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지난해 5.69대 1보다 낮아졌다.

한편 원서접수결과 최고경쟁률을 나타낸 학과는 예술대학의 연극영화학과로 30명모집에 8백 22명이 지원해 27.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에 이어 [先지연 後시험제]로 두번째 실시되는 이번 89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의 학력고사는 12월 16일에 치러지며 면접은 12월 17일에, 예체능 실기고사는 12월 18일부터 23일까지 일어난다.

이번 89학년도의 학과 신설 및 정원조정 내용을 보면 경주캠퍼스 인문과학대에 사회복지학

과, 자연과학대에 산업안전공학과 상경대에 정보관리학과 등 3개 학과가 각 40명 정원으로서 신설되었다.

또 경주캠퍼스 불교학과와 미술학과(한국화·서양화·조소·불교미술) 등 2개 학과에, 각 10명의 정원이고 국문과·영문과·일본과 3개 학과에서 20명이 감축조정되어 실질적인 모집인원은 신설된 1백 20명만이 증원되었다.

이에 따라 모교의 입학정원은 총 3천 8백 10명이 되었으며 서울캠퍼스의 학과 및 정원은 문교부의 수도권대학 정원 통괄방식에 따라 2천 1백 80명으로 예년과 같으며 경주는 1천 6백 30명으로 1백 20명이 늘어난 것이다.

계열별 성적비율은 인문계와 사범계 학과는 학과고사선전 70%(3백 40명) 내신성적 30%(1백 45·7점)이고 예체능계 학



과 (체육교육과·미술학과·연극영화학과)는 학과고사선전 30%(3백 40점) 내신성적 30%(3백 40점) 실기고사(4백 53·3점)로 배정된다.

이번 89학년도 신입생모집의 원서교부는 지난 17일부터 24일 까지 있었으며 합격자명단은 오는 12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설된 학과의 지원율을 보면 사회복지학과가 40명 모집에 2백 39명이 지원해 5·98대 1, 산업안전공학과가 40명 모집에 1백 23명이 지원 3·08대 1, 정보관리학과가 40명 모집에 2백 58명이 지원 6·4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모교소식

2학기 장학내역 발표

88학년도 2학기 장학금으로 3천 7백 35명에게 총 10억 8천 8백 36만 6천 8백 50원이 지급됐다.

모교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교내 장학금이 9억 3천 5백 여만원인 교외 장학금이 1억 5천 2백 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해광장 완공

총면적 1천 1백 85평에 1억 6천 5백 만원을 투입, 지난 8월 11일 공사를 시작한 만해광장이 11월 30일 완공됐다.

대구 「동아리 한마당」

경주캠퍼스 동아리연합회 주최 [제 3회 동아리 한마당]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열렸다.

체육특기자 42명 선발

모교는 88학년도 체육특기생으로 축구, 야구, 농구, 레슬링, 복싱, 스카, 사격 등 7개 종목에 42명을 선발했다.

대학원학생회장 선거

제 5대 대학원학생회장 정·부회장에 단독후보였던 고성훈(사학과 박사과정)이 남석(정치과 석사과정)조가 지난 6월부터 18일까지 실시된 선거에서 당선됐다.

제 5회 보도사진전

東大新聞社 주최 [제 5회 보도사진전]이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학생회관 상설전시장에서 있었다.

전국 대학미진

모교 주최 문교부 후원 [제 19회 전국대학미진]이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렸다.

사범과 명칭개정

사범과 국사교육과는 지난 18일 이원교수 4인과 학생대표 3인이 [역사교육과]로의 명칭개정을 전제로한 6가지 합의사항의 조인식을 가졌다.

학술행사

제 1회 대학원생 학술심포지엄

「이제가 한국사회의 학문에 미친 영향」이라는 주제로 10월 29일 오후 2시 동국관 소강당에서 대학원학생회 주최로 개최.

제 19회 교육문제 심포지엄

「수학교육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10월 29일 오후 2시 동국관 세미나실에서 사범대 주최 수학교육과 주관으로 개최.

제 7회 영남지역 대학생 경제학술논문발표회

「국제경제 환경 변화와 정책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11월 2일 오전 10시 경주캠퍼스 경제학과 주최로 개최.

대학과 지역사회의 학술발표회

및 토론회—경주캠퍼스 설립 1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의 주최로 10월 16일 오후 2시 30분 원효관 교수의실에서 논문 3편 발표.

신라문화학회 회의

—신라문화연구소 주최로 10월 18일 오전 10시 원효관 소강당에서 「황룡사의 종합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개최.

순천대학교 교수 초청강연회

—11월 9일 오후 3시 동국관(L101)에서 농업경제학과 주최로 임분경경대 수목교수를 초청해 「인민공사의 해체와 중국 농업의 현황」이란 주제로 강연.

제 8회 시조학연구발표회

—한국시조학회 주최로 11월 26일 오후 2시 동국관(L305)에서 개최.

학원自主化 진통계속

총장 등퇴진·징계철회 요구로 팽팽한 대립 8개항 합의사항과 교수회치 상충이 難題

모교는 지난 6월 24일 교수·학생·학교당국에 합의한 학원자주화 8개항의 실행을 둘러싸고 학교측과 학생들간의 접점에 대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2학기 들어서자마자 학생들의 「학원자주권수호투쟁」원수를 위한 집회가 잇따르고 또다시 수업거부와 본관점거농성 사태까지 빚어진 모교는 동계방학을 10여일 앞둔 시점까지 전혀 정상화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의 농성과 관련, 학교측이 10월 22일자로 학생 6명에 대해 퇴학등 징계처분을 내리자 40여개 학과의 학생들이 파업에 돌입하는 등 심각한 양상으로 확산된 학내문제는 신입생원서접수를 앞두고 학생들의 입시와 취업관련부서의 농성해제 및 교수회의의 8개항대표인 등으로 한때 대화국면이 조성되기도 했으나 학생들이 학교측의 미온한 자세에 항의해

24일에는 교무처집기를, 28일에는 교수회의 사무실집기를 불태우는 등 다시 악화된 사태를 빚고 있다.

또한 학생징계 및 학내상황과 관련 사회과학대학장 김진배 교수가 보직을 사퇴하고 평교수협의회(회장—金泰俊) 교수 11명이 吳國樞교수회회장의 사퇴와 교수회재결성을 주장하며 25일부터 각 연구실에서 농성에 돌입해 학내문제는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학교당국과 교수회의측은 계속해서 8개항 합의사항의 이행의지를 표명하고 3자연석회의, 교과장정위원회, 학칙개정소위원회 등의 조속한 구성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학생들의 총장, 교수회장, 교무·학생처

장, 비서실장 퇴진 주장과 징계철회 요구로 학교측과 학생들의 팽팽한 대립은 좀처럼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학교측의 문제해결을 위한 자세 전환과 학생들의 학교정상화를 위한 이성적 행동이 이뤄지지 않는 한 학내문제는 계속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會費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에 1만원...회보제작·장학기금·사무국운영에 김요 (단위: 만원)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會長團분담금 ▲이종호 (58명학) = 20 ◇常務理事會費 ▲이종남 (53명경) = 20 ▲정인아 (62명화) = 10 ▲김영환 (62명경) = 20 ▲최춘지 (57명법) = 10 ▲조정환 (49명전) = 10 ▲안종진 (59명문) = 10 ▲이서용 (58명경) = 10 ▲송보열 (57명경) = 10 ▲장철식 (60명정) = 10 ▲신국주 (48명전) = 10 ◇理事會費 ▲임화 (55명법) =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승철 (59명화) = 10 ▲이경주 (58명경) = 10 ▲박수철 (57인화) = 10 ▲김복철 (62명정) = 10 ▲설락 (58명경) = 10 ▲박종국 (65명경) = 10 ▲유병관 (60명정) = 10 ▲박준익 (61명법) = 10 ▲민병진 (62명정) = 10 ▲배문기 (63명화) = 10 ▲구재태 (67명경) = 10 ▲박영상 (79명원) = 10 ▲이재형 (62명경) = 10 ▲최세화 (65명문) = 10 ▲김종진 (73명화) = 10 ▲신현태 (67명경) = 10 ▲신상우 (64명화) = 10 ▲조무성 (64명경) = 10 ▲유해자 (64명문) = 10 ▲오국근 (68명문) = 10 ▲최덕현 (63명문) = 10 ▲조식영 (62명문) = 10 ▲권원욱 (75명원) = 10 ▲김효성 (64명화) = 10 ▲이창규 (63명경) = 10 ▲이경식 (86명경) = 10 ▲송상원 (58수학) =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희공희 (53명경) = 10 ▲김무성 (83명원) = 10 ▲지창훈 (52명경) = 10 ▲김동진 (79명법) = 10 ▲박영환 (49명화) = 10 ▲조병봉 (67명원) = 10 ▲이경순 (64명법) = 10 ▲김희욱 (72명법) = 10 ▲김종혁 (55명문) = 10 ▲조종화 (65명경) = 10 ▲조성현 (67명경) = 10 ▲박선영 (65명법) = 10 ▲정원화 (66명화) = 10 ▲서성배 (63명문) = 10 ▲정경철 (80명원) = 10 ▲김경제 (64명화) = 10 ▲박근호 (70명경) = 10 ▲김원식 (71명화) = 5 ▲김창환 (67명경) = 10 ▲백정기 (64명경) = 10 ▲신민진 (63명경) = 10 ▲김영일 (63명정) =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장식 (62명경) = 10 ▲정문채 (85명원) = 3 ▲김해준 (69명문) = 1 ▲이택토 (70명경) = 1 ▲김세란 (83명원) = 1 ▲박종진 (80명원) = 1 ▲박희준 (60명정) = 1 ▲박준규 (64명문) = 1 ▲박근규 (65명법) = 1 ▲이명주 (산공) = 1 ▲이인선 (76명화) = 1 ▲채병진 (81명화) = 1 ▲박삼호 () = 1 ▲정동기 (72명경) = 1 ▲최신경 (69명화) = 1 ▲김란 (67명법) = 1 |
|---|---|--|---|

목화 화원은
언제 어디서나
정성껏 도와드립니다

목화 화원

전화 267-2871
389-7004 (야)

대표 김명숙 (74사교)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25-1
진양꽃마당 3층 95호

축하화환
근조화환
신부화
각종화본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25-1
진양꽃마당 3층 95호

좌우익 갈등그린 두번째長篇 집필중

대한민국 문학상 신인상 수상한 李元揆 동문

『제가 편이라는 형극의 길을 택하게 된 가장 큰이유는 대략 1회인데 『불연속성의 도정』이란 작품으로 동대문학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3·4학년 협들을 제치고 상을 받아 제가 대단한 놀이줄 알

학상수상 이후 8차례나 신춘문예에 응모했으나 7차례를 최종심사에서 탈락하는 불운을 겪으면서 한때 재능부족이라고 생각도 부를 겪는 참담함을 맛보기도 했다.

그러나 『인생에 자신을 걸어야 할 것은 문학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다시 붓을 들어 37세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일간문학 신인상으로 등단했으나, 뚜렷히 써나가는 것만큼 아무도 칭찬을 해주지 않는 무명



클레를 내면서 어느 정도의 단계를 밟아왔다고 생각, 작년부터 『갈릴릴 연애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주로 가족사적인 배경으로 가족사에 뻗은 분단과 이산문제를 다룬 李동문의 작품으로 『바람과 섬』 『포구의 황혼』 『겨울의 집』 『침묵의 섬』 『달무리』 등이 있는데 갈릴릴 연애사라는 역사의식으로 쓰여진 것들이다.

『이론상으로는 나쁘다』라고 초기작품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李동문은 요즘 내년초 발간예정인 8·15부터 6·25까지 이전과 연안이라든가

의 좌우익 갈등을 그린 두번째 장편소설집에 여념이없다. 『양심적 지식인들이 의제와 야합해서 분단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는 것이 李동문의 분단의식이라면 그의 두번째 장편소설 또한 분단문학의 전환점을 이룰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항상 모교에서 동료 선배들과 문학을위해 합평회를열고 토론을하던 학창시절이 그리다니 『동국문학』이라는 책이 다시 나와 동국문학의 발전에 너넨 참여되어주기를 기대하고있다.

또한 재학후배들에게 문학이길은 고난의 길임을 알고 가장 처절하게 몸을 태우는 헌신의 정신으로 매진할것, 책을 많이 읽을것, 합평회를 자주 가질것을 강조하는 李동문이 새집화의 가치를 높여가는 동국문학협회가 기수로 더욱더 창작에 매진해주시길 기대한다. 李동문은 현재 3학년 개교한 인천인화고등학교 연구주임으로 재직중이다.

이미 87년 3월부터 올 8월까지 월간 現代文學에 연재하면서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몸을 사르는 헌신의 정신 필요”

재학시절 東大文學賞 수상으로 筆緣

『제가 편이라는 형극의 길을 택하게 된 가장 큰이유는 대략 1회인데 『불연속성의 도정』이란 작품으로 동대문학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3·4학년 협들을 제치고 상을 받아 제가 대단한 놀이줄 알

작가의 설움을 감수해야만 했다. 오로지 글을 쓰는 길만이 살아 가는 것으로 생각한 李동문은 그럴수록 더욱 집필에 몰두, 지난해에는 현대문학 창간 30주년기념 장편소설 공모에 소설 『혼잡과 글래』가 당선되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다. 李동문은 『겨울비개』 『한잔』 등을 통하여 인간의 근원적인 진실파악에 주력했고, 『미로이 빛』 『고별간하』 『귀로』 그리고 그의 출세작이며 월남전을 소재로한 『혼잡과



『分斷·文學·統一』

李哲範 著

李哲範(50국문·전철대학교수) 동문의 문학평론집 『分斷·文學·統一』 이 나왔다.

이 평론집에서 李동문은 인간의 문학언어를 토대로 분단이란 역사적 상황속의 우리끼리 살아 문학에서는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를 날카롭게 분석했다. <중조사서적刊>

『사랑굿』

金初蕙 著

경건시인 金初蕙(66국문) 동문이 화제의연작 『사랑굿』 1·2권과 근작들을 한데모아 한편의시집 『사랑굿』을 펴냈다. <한국문학사刊>

『우리를 홀로 있게...』

文貞姬 著

여류시인 文貞姬(70국문) 동문이 최근 삼의태도를진술하게서 모은수필집 『우리를 홀로있게하는것들』을 출간했다. <문학세계사刊>

『서러운 꽃』

金文洙 著

중경작가 金文洙(62국문·소설가) 동문이 최근 일제말에서 60년대중반까지를 시배적 배경으로, 분단상황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후현이들의 삶을다루는 장편 『서러운 꽃』을 출간했다.

무엇이 삶을 불행하게 하는가를 꾸준히 탐구해온 金동문은 장편 『서러운꽃』에서 혼혈을 통해 우리역사의 한자락을 재조명하면서 비단 그 비극적상황을 묘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로부터 이 현실속에서 가능한 삶의 방식을 선택해가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단문학』을 한단계 더 심숙시켰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반함의 구술』

李相文의 著

최근 두드러진 활동을 보여 주목을 받고있는 李相文(74국문) 동문은 문제작가 4명의작품을 모은 『반함의구술』이 출간됐다.

문제중편소설을 추려 단행본으로 펴내고 있는 중편선집시리즈 제3집인 이 소설집에는 李동문의 『숨은 그림찾기』 불빛 『반함의 구술』 『빈그네소리』 『중거인』 등 네작품이 실려있다. <동화출판공사刊>

대 응원부원들을 규합해 동문회를 만들 계획이라고 본회도 알렸는데, 77년도 이전 응원부에서 활동했던 선



東同動大同창동회동지임

배님들의 연락처를 몰라 수 소문중에 있다고.

각종 경기가 열릴 때마다 젊음과 패기로 뿔뿔뿔쳐 수 많은 동문·재학생들의 모교애를 열면 함성으로 이끌어내며 모교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던 왕년의 응원부원들.

“취업절 맞아 『선배찾기』 해도”

本會로 취업문의 줄이어

○...최근들어 본회 사무국에는 취직시업을 앞둔 모교 졸업예정자들의 전화문의와방문질문이 끊이지않아 때는 바야흐로 치열한 취업시즌으로 접어들었음을 실감케 하고있는데...

이들의 문의사항은 면접을 앞두고 그 응시내에 근무하는 선배들로부터 입사정보나 도움받을 듣고싶어 하는게 주종을 이루고있는데, 때로는 동문들의 소재파악이 어려운 회사의 경우연락을 해주지못하게 본회의안락개운심정, 본동동문 선배를 못찾아 孤軍奮戰하는 졸업생에게 격려를 보내며, 부디 취직하시거든 본회에 연락주셔서 다음번 후배에게는 꼭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歷代 응원원은 모이세요”

○...모교 응원단은 최근 역

“모교의 내일 짙어질 白象관문 4對1”

대우자동차(株)
89년신철 정동고급승용차 탄생
로얄시리즈 (로얄프린스·듀크)
월드카프랑 (GSE·올티마·GTE·레이서)
TEL 553-4712
487-7539 (야간) 판매과장:崔鉉石 (74연영)
서울 강남구 역삼동832-3 영신빌딩 1층

全國 林野·상가·빌딩 상담 및 안내
公認仲介士 정중철事務所
公認仲介士 鄭宗喆 (86경인)
●全國不動産仲介協會理事
●城東區公認仲介士會長
전화: (사) 234-4777, 253-9321 (자) 233-5799
서울 성동구 옥수동 243-35 (극동아파트 정문앞)

■西獨 모수純正品
연료節減
엔진출력증가/수명연장
■적용차량
현대·대우 全車種
BOSCH SUPER
CI-Electrode
Thermo exatit
수입원: 洋陽商事 (대표:沈載錄·65경영)
TEL. (02) 213-1392/3107 아르터서비스 244

信一金屬센터(株)
황동판·동판·황동파이프
동판지붕재·비철금속
대표이사 金鍾葉 (84경인)
본사: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55-58
☎ 924-6662, 924-6363

世進家具工芸店
TEL: 736-7887, 2311
■가정용 가구 代表 金文煥 (64경외)
■사무용 가구 서울 종로구 교남동 61-2
■혼례용 가구 (서대문·독립문 중간)

생일이면 떠오르는...
新羅명과
“실속있고품위있는 선물을 원하십니까?”
소비자 상담실 863-4040
대표이사 홍평우 (70경영)

洪性裕 人生劇場

將軍의 아들

*전 6권 완결!
총 170페이지 250,000원 돌파!



“ 무장독립군으로
일본군을 대파한
백야 김좌진 장군.
그 빛나는 아버지의
위업에 도전하는
주목황제 金斗漢의
끝없는 투쟁의 기록!
”

朝鮮日報 연재소설.
홍성유 인생극장 <將軍의 아들>
폭발적인 화제 속에 전 6권 완결!

홍성유 인생극장 <將軍의 아들>은 우리시대의 신화적 인물 金斗漢을 주인공으로 흥미진진하게 펼쳐 나가는 사회소설이다. 암울한 현실에 대한 분노와 절망감으로 시종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는 이 소설은 박진감 넘치는 사건 전개, 감격할 압도, 생생한 인물 묘사를 통해 소설의 잠재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金佐鎭 장군의 아들 金斗漢은 엄격성의 배양과 배아킨 땅에서 주먹계의 황제로 등극, 日帝의 무리들을 한 손에 쥐고 뒤흔들며 민족혼을 불태웠던 情義 넘치는 巨漢으로 필박받는 자의 보호자로, 드디어는 政界의 거물로 日帝의 한국 근대사에 우뚝섰던 우리 時代 가장 늠름한 대장부이며 大自由人이었다.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작가가 아심적으로 짜낸 이 작품 속의 특이한 인물들은 기상천외한 행위를 연출하면서 우리를 기막힌 인생무대로 초대한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드라마틱한 사건들은 우리가 겪어온 근대정치, 사회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일깨우고 있다.

日帝의 무리들을 한 주먹에 쥐고 뒤흔들었던 격동의 시대 풍운아들의 극적인 삶과 죽음을 본 속의 기행과 폭력, 뜨거운 애정과 의리! 한국 근대사의 생생한 모습 <將軍의 아들>

野史에도 못맞추어도 기록되지 않은 술한 사람들이 땅을 갈탄한 일본 야쿠자 그 거리를 배회하는 거렁뱅이 집대부들 민족 수난의 암흑기에 상처받은 자들과 함께 하며 자유와 정의의 편에서 서서 눈부시게 활약했던 金斗漢이 비인간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긴 감동의 파문!

*전 6권 / 각권 300면내외 / 2권 21.300원 *날권판매 *서점에 있습니다.